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에 의료 혜택 제공



▲ 지난 2021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워싱턴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들. 사진=AP/연합뉴스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국 정부가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나, 보훈장관이 정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에서 복무한 미국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 한인 시민권자들은 약 3,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법은 그간 1·2차 세계대전에서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용사 출신 시민권자에게 이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 참전용사들은 해당 규정에 빠져 있어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법은 과거에도 몇 차례 추진됐지만, 의회 문턱을 번번이 넘는 데 실패해 왔다. 그러다 올해 1월 하원 보훈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타카노 의원이 재발의했고, 지난 5월 22일 하원 통과에 이어 지난달 19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해당 법이 발효되면서 그간 의료혜택에서 제외돼 왔던 한인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 참전 미군 후손에 장학금 수여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위원회(회장 노명수, 이하 기념비위원회)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의 후손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기념비위원회는 베테런스데이였던 지난 11일 풀러턴 힐크레스트공원(1200 N Harbor Blvd., Fullerton, CA 92832) 안에 있는 오렌지카운티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이하 기념비) 앞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미 전역의 재향군인단체가 추천한 장학생 후보 가운데 10명을 선발해 장학증서와 장학금 2,500달러(타주 수혜자 500달러 여행 경비 추가 지급)를 전달했다.

노명수 회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용사들의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면서 "매년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을 선발해 베테런스데이인 11월 11일 장학금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엘리나 로즈 오브라이언(Pratt Institute, New York), 사만다 일레인 오브라이언(Castro Valley High School, CA), 케일 맥휴(West Virginia University, West Virginia), 이브 매리몽돈(UC샌타바바라, CA), 에밀리아 스피나(Colgate University, New York), 다운 랭돈(The University of Alabama, Alabama), 마텔라인 벨(Cal Poly Pomona, CA), 케이든 구스타(Canyon Hills High School, CA), 케빈 스킨리(James Madison University, Virginia), 알렉산더 즐리안 커닝햄(Union College, New York) 등이 장학금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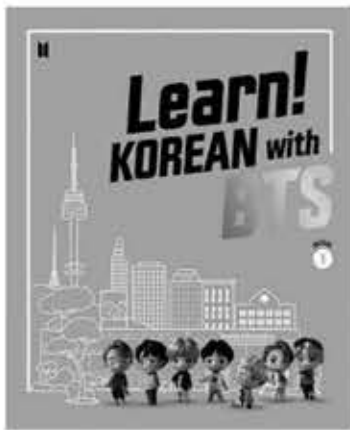
장학생으로 선발된 엘리나 로즈 오브라이언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할아버지(존 오브라이언)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장학금을 준 위원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외국어 수강생 줄었지만 한국어는 인기

미국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한국어가 한류 열풍 덕분에 인기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현대언어협회(MLA)가 15일 미국 대학의 외국어 수업 수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어 외의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2016년 141만8천584명에서 2021년 118만2천562명으로 16.6% 줄었다.

언어별로 보면 스페인어(-18.0%), 프랑스어(-23.1%), 일본어(-4.6%), 독일어(-33.6%), 중국어(-14.3%), 이탈리아어(-20.4%), 아랍어(-27.4%), 라틴어(-21.5%), 러시아어(-13.5%) 등 대부분 주요 언어 수강생이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한국어는 2021년에 1만9천270명이 수강하면서 2016년 대비 38.3% 증가했다. 이는 조사 대상 언어



▲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 교재로 사용 중인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Learn! KOREAN with BTS). 사진=한국국제교류재단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협회에 보고한 대학도 29개 늘었다. 한국어 외에는 수어(0.8%)와 성경 히브리어(9.1%)만 수강생이 증가했다.

폴라 크레브스 MLA 협회장은 한국어 수강생 증가는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나 한국계 학생이 늘어서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동력"이라고 밝혔다.

한국어 수강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다른 주요 언어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한국어는 미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수강하는 외국어 15개 중 라틴어 다음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2천455개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해당 교육기관의 92.2%에 해당한다고 MLA는 설명했다.

Implant \$1,500	잇몸치료 \$600	Exam X-ray Cleaning \$60
Crown \$700	틀니 \$2,000	각종 보험 메디칼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